

---

# 주요국 예산안 - 일본

---

2021. 1.

##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송경호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정은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b>1. 경제 및 재정 전망</b> .....	<b>1</b>
가. 경제 전망 .....	1
나. 재정 전망 .....	3
<b>2. 예산기조</b> .....	<b>5</b>
<b>3. 예산안 내용</b> .....	<b>8</b>
가. 세입 .....	8
나. 세출 .....	11
<b>4. 주요 재정정책</b> .....	<b>18</b>
가. 경제성장 .....	18
나. 안전·재해 예방 및 사회보장 .....	19
다. 지역 발전·창생 .....	21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	22

## 일본 개황

□ FY2021: 2021.4.1 ~ 2022.3.31

□ FY2021 예산편성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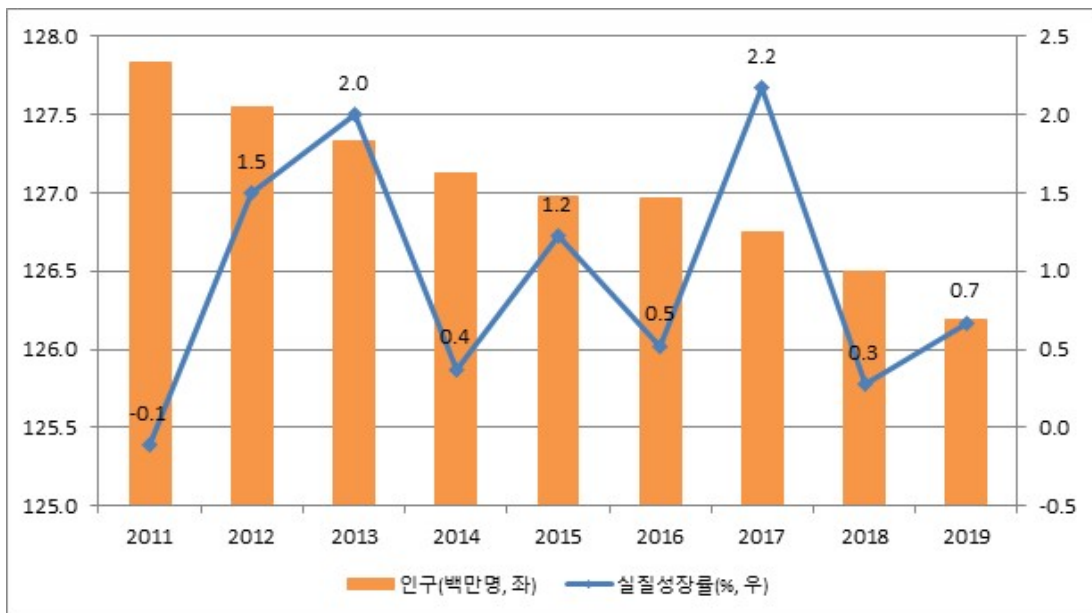
- 2020.7.21 FY2021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 발표
- 2020.10.7. FY2021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및 요망액 발표
- 2020.12.8. FY2021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
- 2020.12.8.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
- 2020.12.15. FY2020 제 3차 추경예산안 발표
- 2020.12.21. FY2021 예산 정부안 발표
- 2021.1.18. FY2021 예산 정부안 관련 추가 발표(특별회계 등)
- 2020.1.18. FY2021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 각의결정

□ 출처

- 「令和3年度予算の概算要求の具体的な方針について」(令和2年7月21日閣議 財務大臣發言要旨)(2020.7.21.)
- 令和3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要望等(2020.10.7.)
- 令和3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令和2年12月8日閣議決定)(2020.12.8.)
- 國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經濟對策(2020.12.8.)
- 令和2年度補正予算(第3号)案(2020.12.15.)
- 令和3年度の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2020.1.18.)

- 令和 3 年度予算政府案(2020.12.21.)
- 令和 3 年度予算政府案關連追加公表(2021.1.18.)

- 환율: 100엔 = 약 0.904달러 (2019년도 평균)<sup>1)</sup>
- 경제규모: 2019년 경상GDP 5조 3,591억 달러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8년 기준 36.8%
- 인구: 1억 2,614만명 (2019년 기준)
- GDP 및 인구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검색일자: 2021.01.26.

1) 출처: OECD stat.. Exchange rates (USD monthly averages)

<요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종합경제대책 및 FY2020 제 3차 추경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책 등에 의한 각종 지원책 효과와 해외경제 개선에 힘입어 회복될 전망
- (재정수지) 2021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112.5% 증가한 20.4조엔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21년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990.3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대비 9.2%p 증가한 40.9%로 전망됨

□ 예산기조

- FY2020 3차 추경과 함께 이른바 '15개월 예산'을 통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중장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 예산안 내용

- (세입) 2021년도 조세 및 인지도입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57.4조 엔, GDP 대비 비중은 10.3%로 전망됨
- (세출) 2021년도 일반회계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6.6조 엔으로 전망되며,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82.9조엔으로 전망됨
  - (종합경제대책)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책 및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통하여 총 재정지출 40조엔을 추가 편성
  - (3차 추경)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에 의한 경제대책을 위한 필요경비 편성을 위해 15개월 예산의 일환으로 총 세출 15.4조엔을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디지털청 신설을 통한 디지털 사회,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적 대응
- (재정건전화) 국가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달성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sup>2)</sup>

- (총평)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이하 종합경제대책<sup>3)</sup>)」의 원만한 실행 및 FY2020 제 3차 추경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책 등에 의한 각종 지원 효과와 해외경제 개선에 힘입어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성장률) 2021년도 실질GDP성장률은 4.0%, 명목GDP성장률은 4.4%로 전망
  - 종합경제대책의 원활하고 착실한 실시에 의해 공적 지출에 의한 경제 뒷받침과, 민간수요의 환기 및 자율적인 회복이 예상되어 FY2021에는 경제가 코로나 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최종소비지출)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에 의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 및 종합경제대책의 효과로 전년대비 3.9% 정도 증가
    - (민간주택투자) 임대주택 착공이 감염증 영향에 의해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8% 증가
    - (민간기업설비투자) 침체에서 회복 및 종합경제대책의 효과, 디지털·그린화 촉진 등에 의해 전년대비 2.9%정도 증가
    - (정부지출) 종합경제대책에 따른 정부 지출 및 사회보장 관련 비용 증가 등에 의해 전년 대비 3.3% 정도 증가
    - (해외수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전망(실질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해외수요의 기여도 전년 대비 0.7% 정도 전망)
  
- (노동·고용) 감염확대 방지와 종합대책의 효과에 의해 고용환경 회복세가 계속됨과 동시에, 여성 및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참가 확대의 영향에 의해 고용자

2) 본 경제전망은 「2021년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기재된 경제재정운영을 전제로 함

3)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 내년도 중에는 국가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민간 수요 주도의 성장체도를 돌리기 위한 시책(출처: 일본 내각부, 「國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2020.12.8.)

수는 증가(전년대비 0.7%정도 증가)하고, 완전실업률은 2.7%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광공업 생산) 국내수요와 수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물가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급을 견인하여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DP디플레이터 역시 전년대비 0.3% 상승 전망
- (국제수지) 소득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경상수지 대비 명목GDP 비율 3.4%)

<표 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대비 %, 조엔)

구분	2019	2020	2021	전년대비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9		2020		2021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조엔)	559.7	536.1	559.5	0.5	-0.3	-4.2	-5.2	4.4	4.0
민간최종소비지출	304.2	285.9	297.2	-0.3	-0.9	-6.0	-6.0	4.0	3.9
민간주택투자	21.4	20.0	20.6	4.1	2.5	-6.3	-6.7	2.7	1.8
민간기업설비투자	91.6	83.7	86.4	-0.2	-0.6	-8.6	-8.1	3.2	2.9
민간재고변동(기여도) <sup>주1</sup>	2.0	1.4	1.1	(-0.1)	(-0.1)	(-0.1)	(-0.0)	(-0.1)	(-0.1)
정부지출	141.0	146.4	151.7	2.6	1.9	3.9	3.7	3.6	3.3
정부최종소비지출	111.7	115.4	119.5	2.4	2.0	3.3	3.2	3.5	3.3
공적고정자본형성	29.3	30.9	32.2	3.1	1.5	5.7	5.4	4.1	3.3
재화·서비스 수출	95.5	80.2	90.2	-5.8	-2.6	-16.0	-13.7	12.5	11.4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96.0	81.5	87.5	-5.6	-1.2	-15.1	-6.4	7.4	6.7
내수기여도	/			0.5	-1.2	-4.1	-4.0	3.6	3.3
민간수요기여도				-0.1	-0.1	-5.0	-4.9	2.6	2.4
공적수요기여도				0.6	-0.6	1.0	0.9	1.0	0.9
외수기여도				-0.0	-0.2	-0.1	-1.2	0.7	0.7
국민총소득(GNI)	581.5	556.7	578.0	0.5	-0.1	-4.3	-4.1	3.8	3.6
노동·고용									

노동력인구	6,895	6,861	<b>6,882</b>	0.7	-0.5	<b>0.3</b>
취업자수	6,733	6,652	<b>6,693</b>	0.8	-1.2	<b>0.6</b>
고용자수	6,020	5,945	<b>5,984</b>	0.0	-1.2	<b>0.7</b>
완전실업률 (%)	2.3	3.1	<b>2.7</b>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3.8	-11.0	<b>9.4</b>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율)	0.1	-1.8	<b>0.7</b>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0.5	-0.6	<b>0.4</b>			
GDP디플레이터(변화율)	0.9	1.0	<b>0.3</b>			
국제수지 (조엔)						
무역·서비스수지	0.2	-1.1	2.6			
무역수지	0.7	0.9	3.8			
수출	74.9	65.1	<b>72.1</b>	-6.7	-13.1	<b>10.7</b>
수입	74.3	64.3	<b>68.3</b>	-6.7	-13.5	<b>6.2</b>
경상수지	20.1	15.3	<b>18.3</b>			
명목GDP대비 경상수지 (%)	3.6	2.8	<b>3.4</b>			

주: 1. ( )안 수치는 GDP 성장 기여도를 의미

2. 2019년 10월에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이 2020년도 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을 기계적으로 시산하면, 소비자물가(종합) 0.5%p정도, GDP디플레이터는 0.4%p정도로 전망됨. 또한 소비세율 인상에서 수반하여 실시되는 교육무상화에 의한 소비자물가(종합)의 영향을 기계적으로 시산하면 유아교육·보육 무상화는 -0.3%p정도, 고등교육무상화는 -0.1%p정도로 전망됨. GoTo 캠페인 사업의 소비자물가(종합) 영향은 2020년에 -0.3%p정도, 2021년에 0.2%p정도로 전망됨

자료: 내각부, 「令和3年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p5 재구성, 2021.1.18

##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2021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112.5% 증가한 20.4조엔을 나타낼 전망
  - (세입) 2021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57.4조엔, GDP 대비 비중은 10.3%로 전망되며, GDP 대비 세수 및 기타수입의 비중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14.8%로 전망
  - (세출) 2021년도 일반회계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6.6조엔(GDP 대비 19.1%)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82.9조엔(GDP 대비 14.8%)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21년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990.3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대비 9.2%p 증가한 40.9%로 전망

○ GDP 대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18%p 증가한 177%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잔고는 전년대비 8%p 감소한 216% 규모로 전망

<표 2> FY2020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단위: 조엔, %)

구분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FY2020	FY2021 (정부안)
일반세출 <sup>2)</sup>	57.4	57.8	58.4	58.9	62.0	63.5	66.9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sup>3)</sup>	72.9	73.1	73.9	74.4	77.9	79.3	82.3
GDP 대비 %	13.7	13.6	13.5	13.5	14.0	13.9	14.7
일반회계세출총액	96.3	96.7	97.5	97.7	101.5	102.7	106.6
GDP 대비 %	18.1	18.0	17.8	17.7	18.2	18.0	19.1
조세 및 인지수입 <sup>4)</sup>	54.5 (6.2)	57.6 (6.3)	57.7 (6.3)	59.1 (6.4)	62.5 (7.9)	63.5 (10.2)	57.4 (9.5)
GDP 대비 %	10.2	10.7	10.5	10.7	11.2	11.1	10.3
국채발행 수입	36.9	34.4	34.4	33.7	32.7	32.6	43.6
국채잔고	805.4	830.6	853.2	880.2	898	906	990.3
GDP 대비 %	151.1	154.7	155.9	159.3	161	159	177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	1,032.7	1,056.1	1,076.6	1,104.6	1,106	1,201	1,209
GDP 대비 %	194	197	197	200	198	224	216
기초재정수지 <sup>5)</sup>	-13.4	-10.8	-10.8	-10.4	-9.46	-9.62	-20.4
국채의존도(% <sup>6)</sup>	38.3	35.6	35.3	34.5	32.2	31.7	40.9

주: 1) 당초예산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는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팔호안 이텔릭체의 수치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의미(국세부분)

5) 일반회계기초재정수지=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6)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令和3年度予算政府案)」, 2020.12.

## 2. 예산기조

### □ FY2021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20.12.8.)<sup>4)</sup>

- FY2021 예산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도모하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성장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
  - 감염증 확대 방지, 디지털 청 신설 등 디지털화 촉진, 2025년 탈탄소화를 목표로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하면서도 재정건전화달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유연한 예산편성을 목표로 함
  - 아울러 FY2020 3차 추경예산 및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포함한 예산 일체화로 이른바 「15개월 예산\*」 아래, 기동적이며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
    - \* 경제 대책 등을 위해 공공사업비 등을 조기에 담은 해당연도의 추경예산과 다음연도 예산을 통해 총 15개월간 끊어짐 없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방재·감재(減災) 및 국토강인화를 위해 「방재·감재(減災), 국토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가칭)」을 2025년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실시
  - 극심한 풍수해나 지진 등에 대한 대책 및 예방·보전을 위해 노후화 대책의 가속화, 디지털화 등의 추진에 관련된 대책이며, 첫년도는 FY2020 3차 추경으로 조치
- FY2021 예산은 「경제재정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이하 기본방침)」<sup>5)</sup>에 기반하여 경제·재정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세출·세입 모두 개혁을 추진할 예정

4) 내각부, 「令和3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20.12.8.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0/r3\\_yosanhensei.pdf](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0/r3_yosanhensei.pdf)

5) 줄여서 골태 방침(骨太方針).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재정이나 경제정책의 기본 운영방침의 통칭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2001년 처음 작성. 정식명칭은 “경제재정운용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경제재정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등 시기와 정권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민주당 정권시기(2009~2012)년에는 중지되었으나, 2013년 제 2차 아베내각 이후 매년 발표

- 차세대형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시스템이나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거버먼트의 조기실현을 도모
  - 행정사업 리뷰를 철저히 실시하며, 근거기반정책입안(EBPM,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추진하여 예산의 질 향상 및 효과 검증을 꾀함
  - 정책 효과가 높은 세출로 전환하는 와이즈 스펀딩(Wise Spending) 구조를 강화하고, 민간 내수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으로 이어지는 시책을 환기
  - 국민 각층의 의식개혁이나 행동변용으로 이어지는 가시화, 선진·우량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인센티브 개혁 등의 대응을 EBPM과 일체적으로 추진

□ FY2021 예산의 주요 내용 (2020.12.21.)<sup>6)</sup>

- FY2021 예산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디지털 사회·그린 사회, 활력 있는 지방, 저출산 대책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 제도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도 대응하는 예산을 목표로 함
- (감염확대방지)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FY2020에 코로나예비비 5조엔을 확보하였으며, FY2021에도 코로나예비비 5조엔을 조치
  - 3차 추경 예산으로 병상·숙박 요양시설확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체제 정비·접종 등을 조치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
    - 감염증 위기관리 체제·보건소 체제 정비
    - 감염증 대책을 위한 진료수가의 임시조치
    - 의료기기 국내 생산능력 증강
- (디지털·그린 사회 실현) 2021년 9월 강력한 종합 조정기능을 가진 디지털 청을 설치하고, 그린 사회 실현을 위해 성과 연동형의 저리 대출 제도 창설 등 혁신

6)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21.를 정리하여 작성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1/seifuan2021/01.pdf](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1/seifuan2021/01.pdf)

## 기술 개발 등을 지원

- 민관 전문 인재를 결집한 500명 규모의 디지털 청 설치
- 정부 전체의 정보시스템 일괄 관리(3,000억엔)
- 마이 넘버 카드)와 운전면허증 일체화 추진
-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기업에 성과 연동형 저리 대출제도 창설(향후 3년간 1조엔 대출 규모)
- 재생에너지 절약 등 연구개발 및 도입 지원
- (활력있는 지방) 지역 활성화의 자주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지방 창생 추진 교부금」 사업 확충과 동시에 기업과 자치단체의 매칭을 지원하는 「지방 창생 텔레워크 추진사업」 등으로 지방으로 인재와 일자리 흐름을 확대
- (전세대 사회보장제도 구축) 후기 고령자 의료의 자기부담 비율 재검토 등 제도개혁과 함께 육아세대 등의 희망 실현을 위한 저출산 대책, 불임 치료 비용 조성 등
  - 「신 육아 안심 플랜」에 기반한 보육 수용체계 정비(602억엔)
  - 불육증 검사·암 치료에 따른 불임 관련 지원(23억엔)
- (세출개혁) 「기본방침(骨太の方針)」하에 세출개혁을 지속하여 목표를 달성하며 예산의 질 향상
  - 사회보장관계비 : +1,507억엔(의료비 동향을 감안하여 전년도 기반 실질적 성장은 +3,500억엔 정도)
  - 비사회보장관계비: +330억엔(지금까지의 개혁 계속)

---

7)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IC 칩 내장 카드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앞면은 사진, 주소, 생년월일, 성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개인 번호가 기재되어 세금·사회보장·재해대책법령에서 정한 절차 수행 시 사용 가능. 전자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실시하여 행정기관 전자 신청 등에 사용 가능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

□ FY2021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3.8% 증가한 106조 6,097억엔으로 전망됨

○ (조세 및 인지수입)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9.54% 감소한 57조 4,480억 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의 비중은 10.3%로 전망

- 모든 세목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감소하였으며, 가장 감소폭이 큰 항목은 국제관광여객세로 전년대비 44.4% 감소하였으며, 석유가스세(-33.3%), 항공기연료세(-31.5%) 법인세(-25.4%), 인지수입(-14.3%) 관세(-10.6%), 톤세(-10.0%), 석유석탄세(-7.5%), 주세(-7.0%), 소비세(-6.6%), 휘발유세(-6.1%), 소득세(-4.4%), 상속세(-4.8%), 전원개발촉진세(-3.2%), 자동차중량세(-2.8%), 담배세(-0.2%) 순으로 감소<sup>8)</sup>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5% 감소한 5조 5,647억엔으로 전망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33.9% 증가한 43조 5,970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채의존도도 전년대비 9.2%p 증가한 40.9%로 전망

8) 재무성, 「令和3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概算」, 2020.12.21.

<표 3> FY2021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억엔, %)

구 분		FY2020 당초(A)	FY2021 정부안(B) <sup>1)</sup>	증감액 (B-A)	증감율 (B/A-1)	
세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635,130	574,480	-60,650	-9.5	
	2. 기타 수입	65,888	55,647	-10,241	-15.5	
	3. 공채금(세출과 세수등과의 차이)	325,562	435,970	110,408	33.9	
	(1) 채무상환비 상당분(교부 국채분 제외)	145,394	147,317	1,923	1.3	
	(2)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83,904	85,036	1,132	1.3	
	(3) 정책적지출에 의한 적자(기초적재정수지적자) 상당분	96,264	203,617	107,353	111.5	
<b>합계</b>		1,026,580	1,066,097	39,517	3.8	
세출	1. 일반세출	617,184	669,080	51,896	8.4	
	(1) 사회보장관계비	356,914	358,421	1,507	0.4	
	(2) 사회보장관계비 외	260,269	260,599	330	0.1	
	(3)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예비비	-	50,000	50,000	순증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58,093	159,489	1,396	0.9	
	3. 국채비	233,515	237,588	4,073	1.7	
	(1) 중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45,394	147,317	1,923	1.3	
	(2) 중 이자지급비용	83,904	85,036	1,132	1.3	
	<b>소계</b>		1,008,791	1,066,097	57,306	5.7
	4. 임시·특별조치에 의한 일반세출	17,788	-	-17,788	순감	
<b>합계</b>		1,026,580	1,066,097	39,517	3.8	

주: 1) 「사회보장관계비」, 「사회보장관계비 외」의 FY2020예산은 FY2021 예산과 비교대조를 위해 재계산

2)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공채금 분류는 기초적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충당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분」으로 표현

4) 현행 특례공채법은 5년간 특례공채 발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 말에 기한이므로, 5년간 더 연장을 위한 특례공채 발행 근거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을 모색중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21.

<표 4> FY2021 일반회계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목 (일반회계)	FY2020		FY2021	전년대비			
	(당초)예산	추경후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추경후예산대비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62,090	155,910	157,440	-4,650	-2.9	1,530	1.0
신고소득세	33,200	29,050	29,230	-3,970	-12.0	180	0.6
<b>(소득세 계)</b>	<b>(195,290)</b>	<b>(184,960)</b>	<b>(186,670)</b>	<b>(-8,620)</b>	<b>(-4.4)</b>	<b>(1,710)</b>	<b>(0.9)</b>
법인세	120,650	80,410	89,970	-30,680	-25.4	9,560	11.9
상속세	23,410	22,310	22,290	-1,120	-4.8	-20	-0.1
소비세	217,190	192,730	202,840	-14,350	-6.6	10,110	5.2
주세	12,650	11,430	11,760	-890	-7.0	330	2.9
담배세	9,140	8,620	9,120	-20	-0.2	500	5.8
휘발유세	22,040	20,470	20,700	-1,340	-6.1	230	1.1
석유가스세	60	60	40	-20	-33.3	-20	-33.3
항공기연료세	540	110	370	-170	-31.5	260	236.4
석유석탄세	6,550	5,990	6,060	-490	-7.5	70	1.2
전원개발촉진세	3,150	3,150	3,050	-100	-3.2	-100	-3.2
자동차중량세	3,930	3,930	3,820	-110	-2.8	-110	-2.8
국제관광여객세	540	30	300	-240	-44.4	270	900.0
관 세	9,460	8,250	8,460	-1,000	-10.6	210	2.5
톤 세 <sup>1)</sup>	100	100	90	-10	-10.0	-10	-10.0
인지수입	10,430	8,700	8,940	-1,490	-14.3	240	2.8
<b>합 계</b>	<b>635,130</b>	<b>551,250</b>	<b>574,480</b>	<b>-60,650</b>	<b>-9.5</b>	<b>23,230</b>	<b>4.2</b>

주: 1) 외국무역선 입항 시 무역선의 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으로 납부

자료: 재무성, 「令和2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概算」, 2019.12.20.

## 나. 세출<sup>9)10)</sup>

□ FY2021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7% 증가한 106조 6,097억 엔으로 책정됨(FY2020의 임시·특별조치 제외 계산분)

- (일반세출) 전년대비 8.4% 증가한 66조 9,080억엔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FY2020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를 제외하면 0.3% 증가한 61조 9,080억엔
- (국채비) 전년대비 1.7% 증가한 23조 7,588억엔을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당초예산대비 0.9% 증가한 15조 9,489억엔을 편성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93.7조엔이며, 회계간 이전을 제외한 순계액은 245.3조엔
  - 세출 순계액의 대부분은 국채상환비, 사회보장급부비, 재정융자자금으로 이전(재투채를 통한 자금조달),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이며, 이를 제외하면 7.4조엔, 동일본대지진 부흥이라는 특수요인인 부흥경비 0.8조엔을 제외하면 총 6.6조엔
    - 6.6억엔 중 50%는 보험사업, 20%는 에너지대책에 쓰여지며 그 외 식품안정공급 등에 지출될 예정

□ FY2021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33.6%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는 전년 대비 1,057억엔(0.4%) 증가한 35조 8,421억엔 규모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7%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 대비 26억엔 증가한 6조 695억엔 규모

9)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21. .

10)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及び財政投融资計画の説明」, 2021.1.18.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1%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57억엔 증가한 5조 3,969억엔으로 편성,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대비 108억엔(0.8%) 증가한 1조 3,673억엔 규모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0%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대비 610억엔(1.2%) 증가한 5조3,235억엔 규모
- (신형코로나바이러스대책예비비) 예기치 못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 황변화에 대비하여, FY2021에도 코로나예비비 5조엔을 조치

<표 5> FY2020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임시·특별조치분 포함)

(단위: 억 엔, %)

구분	FY2020 <sup>1)</sup>	FY2021	증감액	증감률
	(A)	(B)	(B-A)	(%)
<b>일반세출<sup>2)</sup></b>	617,184	669,020	51,836	8.4
사회보장관계비	356,914	358,421	1,507	0.4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912	53,969	57	0.1
(과학기술진흥비)	13,565	13,673	108	0.8
연금관계비	1,750	1,451	-299	-17.1
방위관계비	52,625	53,235	610	1.2
공공사업관계비	60,669	60,695	26	0.0
경제협력비	5,116	5,108	-8	-0.2
ODA	5,610	5,680	69	1.2
중소기업대책비	1,723	1,745	22	1.3
에너지대책비	9,008	8,891	-117	-1.3
식품안정공급관계비	12,862	12,773	-90	-0.7
기타 경비	57,605	57,732	127	0.2
예비비	5,000	5,000	-	-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책예비비		50,000	50,000	100.0
<b>국채비</b>	233,515	237,588	4,073	1.7
<b>지방교부세교부금</b>	158,093	159,489	1,396	0.9
<b>합계<sup>3)</sup></b>	1,008,791	1,066,097	57,306	5.7

주: 1) FY2020 예산은 임시·특별조치를 제외하였음. 또한 FY2021 예산과 비교대조를 위해 재조합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21.

[그림 1] 일반회계주요경비 추이

단위: 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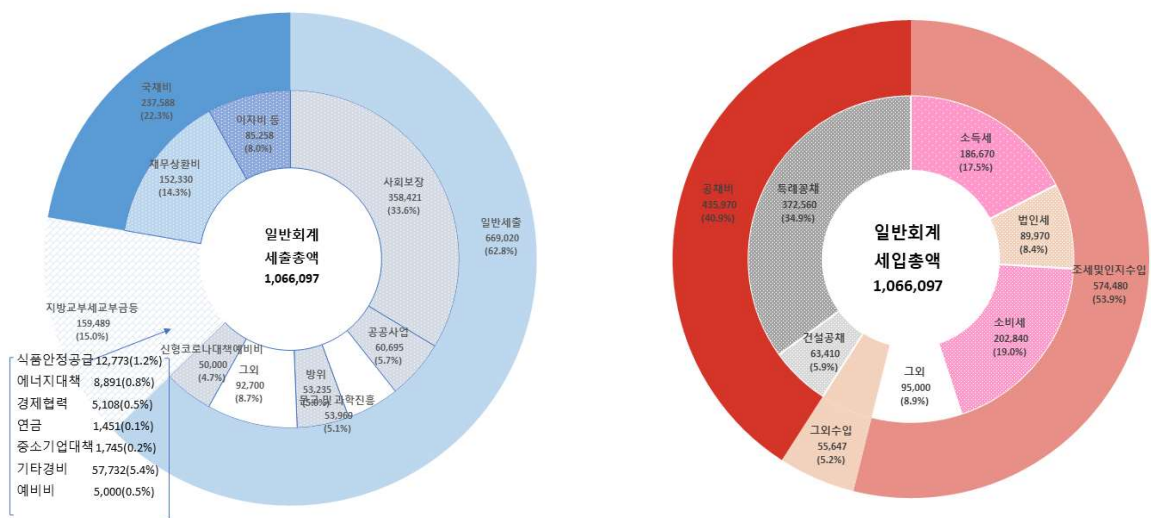


주: 2010년까지는 결산, 2021년은 정부안

자료: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令和3年度予算政府案)」, 2020.12.21.

[그림 2] FY2021 일반회계 세출·세입 구성

단위: 억 엔, %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p9, 2020.12.21.

<참고 1> FY2020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 (목적) 일본정부는 임시 각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 강력한 경제대책으로 2021년 내에 코로나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발표(2020.12.8.)<sup>11)</sup>
- (내용 및 규모) 총 재정지출 40조엔, 총 사업 규모 73.6조 엔
  - (재원)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FY2020 3차 추경 예산과 FY2021 당초 예산안에 계상될 예정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책) 감염확대에 대해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다시 한 번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병상 확보를 비롯한 만전의 의료제공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지책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지원교부금(의료, 돌봄, 장애복지, 아동복지)
    - 국립병원기구의 의료제공체제 정비
    - PCR 검사·항원 검사 실시 및 키트 매입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 확충
    - 원격의료설비 정비사업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역학조사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체제의 정비
    -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의 확충 및 백신의 안전성 확보 등
  -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행정 디지털화의 지연, 신형 코로나 감염증을 계기로 부각된 과제에 대처, 디지털·그린을 비롯한 성장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 상승을 촉진하여 소득 확대 및 성장력 강화로 이어지는 시책에 집중 지원

11) 내각부, 「國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令和2年12月8日閣議決

-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 및 디지털 청 신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혁신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창설
  - 지방에 대한 인재의 흐름 촉진 등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 기업의 탈탄소화투자를 추진하는 세제 추진 등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안전 확보) 2021년부터 시작되는 2025년의 「방재·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대책(가칭)」을 위한 추진(사업규모 15조엔 정도),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재해 복구, 노후화 대책 등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비비의 적시 집행) 예기치 못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의 신속·적시 집행을 위한 필요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
- (기대 효과) 본 대책의 효과로 실질 GDP의 약 3.6%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경제대책에 의한 고용 유지 및 창출 효과는 2021년 대략 60만명 정도로 예상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사업규모 및 재정지출 내역>

단위: 조 엔

	재정지출			사업규모
	합	국·지방 세출	재정투융자	
I.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책	5.9	4.5	1.4	6.0
II.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18.4	13.4	5.0	51.7
III.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안전 확보	5.6	4.4	1.3	5.9
IV.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비비 적시 집행	FY2020	5.0	-	5.0
	FY2021	5.0	-	5.0
<b>합계</b>	<b>40.0</b>	<b>32.3<sup>1)</sup></b>	<b>7.7<sup>2)</sup></b>	<b>73.6</b>

주1): 국비는 30.6조엔이며, 이 중 FY2020 3차 추경예산은 20.1조엔(일반회계 19.2조엔, 특별회계 1.0조엔)임

주2): FY2020 3차 추경 추가액은 1.4조엔임

출처: 내각부, 「國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令和2年12月8日閣議決定)」(令和2年12月8日) p50~51재구성

<참고 2> FY2020 3차 추경예산

- FY2020 3차 추경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중합경제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경비 계상 및 이를 위한 세출 기본경비 감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2020.12.15.)<sup>12)</sup>
  - (세출) 일반회계 세출은 경제대책에 의한 추가경비 19조 1,761억엔에 그 외 기정경비 감액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예비비 감액 등으로 총 세출은 15조 4,271억엔을 계상
  - (세입)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국채 22조 3,950억엔 발행 및 전년도 잉여금 수입 6,904억엔에 세입 감소분 8조 3,889억엔을 제외한 15조 4,271억엔으로 집계됨
  - (특별회계) 그 외 노동보험특별회계,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소요 보정이 있을 예정
  - (재정 투융자 계획) 1조 4,341억엔이 추가되어 총 64조 2,671억엔이 됨(이 중 재정융자 121억엔, 산업투자 200억엔, 정부보증 20억엔)

<FY2020 3차 추경예산 개요>

구분	내용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대책 (43,581억엔)	<b>(1) 의료제공체제 확보와 의료기관 등에 지원: 16,447억엔</b>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지원교부금(병상 및 숙박요양시설등 확보 등)(13,011억엔) · 진료·검사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 등의 감염 확대 방지 등의 지원(1,071억엔) · 의료기관등 자금 융통 지원(1,037억엔) · 소아과등의 의료기관등에 대한 진료보수 지원(71억엔) 등
	<b>(2) 검사체제 확보, 백신접종체제 등의 정비: 8,204억엔</b> · 신형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체제의 정비·접종 실시(5,736억엔) · PCR검사·항체검사 실시 등(672억엔) 등
	<b>(3) 철저한 감염방지대책 기반 조성: 17,487억엔</b> ·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방창생임시교부금(15,000억엔)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연기에 의한 감염증 대책 사업(959억엔) 등
	<b>(4) 감염증 수습을 위한 국제협력: 1,444억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국제기관 등을 통한 지원(792억엔) 등</li> </ul>
<b>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116,766억엔)</b>	<b>(1) 디지털 개혁·그린 사회 실현: 28,256억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단체의 디지털기반개혁 지원(1,788억엔)</li> <li>· 마이넘버카드 보급 추진(1,336억엔)</li> <li>· 포스트 5G, Beyond5G(6G) 연구개발지원(1,400억엔)</li> <li>·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지원 기금 창설(20,000억엔)</li> <li>· 그린주택 포인트 제도 창설(1,094억엔) 등</li> </ul>
	<b>(2) 경제구조 전환·이노베이션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23,959억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중소기업 경영전환 지원(사업재구조조보금)(11,485억엔)</li> <li>· 대학펀드(5,000억엔)</li> <li>· 지속화급부금 등(2,300억엔)</li> <li>· 국내외 서플라이체인 강인화 지원(2,225억엔)</li> <li>· 지역공공교통 유지·활성화에 중점적인 지원(150억엔) 등</li> </ul>
	<b>(3) 지역·사회·고용에 의한 민간수요주도의 선순환 실현: 64,551억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소규모사업등에 자금융통 지원(32,049억엔)</li> <li>· 지방창업임시교부금(재게시)</li> <li>· Go To 트래블(10,311억엔), Go To 잇(515억엔)</li> <li>· 고용조성보조금 특례조치(5,430억엔)</li> <li>· 긴급 소규모 자금 등 특례조치(4,199억엔)</li> <li>· 관광(인바운드 부활을 향한 기반 조성)(650억엔)</li> <li>· 불임치료 관련 조성 조치 확충(370억엔)</li> <li>· 수전의 발지화·범용화·대 구획화 등에 의한 고수익화 추진(700억엔)</li> <li>·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이프티넷 강화교부금(저소득자·자살대책 등)(140억엔) 등</li> </ul>
<b>3.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안전 확보 (31,414억엔)</b>	<b>(1)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20,936억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공공사업) 16,532억엔</li> <li>* 「자연재해 복구·부흥 가속」 등에 정리되어 있는 사업을 포함한 강인화 예산 전체 22,604억엔을 확보함</li> </ul>
	<b>(2) 자연재해 복구·부흥 가속: 6,337억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복구 등 사업비(6,057억엔)</li> <li>· 재해폐기물처리(106억엔) 등</li> </ul>
	<b>(3) 국민안전·안심 확보: 4,141억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위대의 안정적인 운용태세 확보(3,017억엔) 등</li> </ul>
<b>추경예산 추가 세출 계: 191,761억 엔</b> 주 1: 3차 추경에는 경제대책 집행과 관련된 국비 및 국제분담금 등의 추가재정수요(252억엔) 등을 계상 주2: 상기 외에 노동보험 특별회계에서 9,320억엔, 에너지대책특별회계에서 169억엔의 세출 추가 등을 계상 출처: 재무성, 「令和2年度補正予算(第3号)の概要」, 2020.12.15.	

## 4. 주요 재정정책

### 가. 경제성장

- (기업)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인재 대책, 자금유통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산학관연계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승계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지속지원센터」와 「사업승계네트워크」의 통합,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인재발굴, 확보 등을 위해 지원
  - 자금유통 대책으로 공적 신용보완 기반 강화에 필요한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에 대한 출자금 및 자금공급 업무원활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용보증과 관련된 전국신용보증협회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 (에너지·환경) 「제 5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8년 7월 3일 각의 결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에너지 절약 추진 및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비롯해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확보 등에 대응
  - 재생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설비 등의 도입,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채굴·개발, 석유 생산·유통 합리화 등을 추진
- (농림수산) 강한 농림수산업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의 관점에서 예산 편성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5조엔 목표 실현을 향해서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 실행 전략」에 근거해, 수출 중점 품목에 대해 산지 육성, 수출 장벽 해소, 해외 판로 개척을 추진.
  - 보조금 신청을 포함한 행정절차의 디지털화와 농지의 현지정보 통합 등 농림수산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

12) 재무성, 「令和2年度補正予算(第3号)案」, 2010.12.15.

-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효과 가스의 흡수원이 되는 삼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목재제품 이용 확대 추진
- (교육·과학기술) 교육환경 정비와 대학개혁, 안전한 학교시설 정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 기술 기반을 충실히 다지며 혁신을 촉진
  - 「교육의 디지털화」 관점에서 디지털 교과서 보급(22억엔) 및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7억엔)할 예정
  - 2021년도부터 5년 간 초등학교 학급당 35명 이하를 실현하기 위해 「공립 의무교육제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원 표준에 대한 법률」 개정
  - 박사 후 과정 학생의 처우 향상과 경력 확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펠로우십」 사업을 창설하여, 장래의 학술 연구를 담당하는 신진 연구자를 지원(23억엔)

#### 나. 안전·재해 예방 및 사회보장

- (외교·방위) 안전 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조달의 효율화 및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방위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아갈 예정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제적인 수습을 위해 보건 분야 ODA를 확충
  - 여권의 전자 신청 등 디지털화 추진을 시작으로 외교·영사 실시 체제를 강화
  - 중기방어력정비대상경비에 대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1.1% 증액을 확보하고,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능력 강화 등 다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추진
- (경찰·해상보안)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대책 외에 테러 방

지 및 테러 대처 체제 강화를 위한 대응 추진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 시 치안확보 및 테러 방지 등을 위한 기자재 정비 등 경비체제를 확충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치관리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리모트화 등 감염 리스크 절감 환경정비 장치 도입 추진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정비 추진
  - 센가쿠·야마토퇴(大和堆)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순시선 중심으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
- (사회보장)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며, 의료비 동향 등을 반영하여 「기본방침」에 근거한 세출 개혁을 지속할 예정
- 직원의 처우 개선을 배려한 간호 보수 개정(+0.70%, 196억엔), 장애 복지 서비스 등 보수 개정(+0.56%, 86억엔)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
  - 약제비 개정을 매년 실시하여 실제 가격의 하락을 반영해 국민 부담을 경감(-1,001억엔, 참고3 참고)하여, 사회보장 관계비의 실질적인 증가를 “고령화에 의한 증가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침을 달성<참고 3 참고>
  - 후기 고령자 의료의 자기부담 비율 재검토 등 제도개혁과 함께 육아 세대 등의 희망 실현을 위한 저출산 대책 추진
    - 「신 육아 안심 플랜」에 기반한 보육 수용인원 정비(602억엔)
    - 불육증 검사·암 치료에 따른 불임관련 지원(23억엔) 등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분을 활용하여 연금생활자지원금부금을 지급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와 사회경제활동 양립을 목표로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에 의한 고용 유지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이직자를 시범 고용하는 사업주에 조성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촉진 등 노동·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 다. 지역 발전·창생

- (공공사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일체화 한 방재·감재 대책과 국토 강인화 추진에 중점을 두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
  - 공공사업관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6조 695억엔)하여, 유역 전체의 치수대책과 신기술을 활용한 노후화 대책 등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에 대한 중점화 추진
  - 국고 채무 부담 행위(2개년 국채, 제로 국채)를 활용하여 공공 공사 시공 시기를 평준화하며, 대규모 직할 토목 공사 설계의 3차원 디지털화를 원칙화하여 건설 업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
  
- 활력 있는 지방만들기
  - 지역활성화의 자주적·선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1,000억엔)」의 이주지원사업을 확충하고, 기업·지자체를 매칭 지원하는 「지방창생 텔레워크 추진사업(1.2억엔)」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인재 및 일의 흐름을 확대.
  - 「인바운드 소비 2030년 15조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관광여행객세를 활용하여 자연·문화를 살린 고부가 가치 콘텐츠의 창출, 호텔·여관의 서비스 향상
  - 얼굴 인증 결제 활용 등 「관광 디지털화」 및 업무 추진
  
- 지방재정
  -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 감소에 대해 지방의 일반 재원 총액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지방을 최대한 배려하여 2018년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동 수준을 확보
  
- (부흥) 「제 2기 부흥·창생 기간<sup>13)</sup>」의 첫해로, 단계에 따라 꾸준히 복구 계획을

13)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기본방침」을 기본으로, '재해지역의 자립으로 이어져 지방 창생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흥을 실현해 나간다'는 '제1기 복구·창생기간(2016년~2020년)'의 이념을 계승해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2021년도부터 5년간을 '제2기

설립하기 위해 동일본대지진부흥 특별회계총액을 약 9,300억엔 계상

- 지진·해일 피해지역 내 심리치료 등 이재민 지원과 원자력 재해 피해지역 내 중간저장시설 정비와 함께 귀환·이주 촉진 등 본격적인 복구·재생을 위한 방안 추진

##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 □ 수직관계 행정 타파 및 부처 간 연계 추진

- 유역치수대책을 활용한 부처간 연계(국토교통성의 방재·안전교부금 8,540억엔 외에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의 관련 사업)
  - 하천관리자, 도도부현, 시읍면 관계자가 협동하여 유역치수프로젝트(토지이용과 마을 만들기를 포함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추진
  - 제방·하수도·농업수리시설·논, 학교시설, 복지시설, 국유지 등의 기능 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직접사업 및 지자체·민간기업용 교부금·보조금을 중점 배분
-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안정적·효율적인 공급 및 이용 시스템 구축(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 12.5억엔)
  -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에 연구회를 발족하여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과제를 정리. 양 성이 연계하여 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조·수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 등을 창설

### □ 방위력 정비의 효율화 및 합리화

- 방위제품 전반에 걸쳐, 중요도가 하락한 장비의 운용정지나 장기계약의 활용, 원가 정밀 조사, 조달 최적화 등을 도모하여 -4,168억엔의 효율화 및 합리화 효과를 실현

### □ 인구 1인당 인프라 유지갱신비용 증가 억제

---

부흥·교정 기간으로 규정

- 인프라 노후화 대책과 관련한 자치단체 전용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해, 시설의 집약·철거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 방침을 제시할 것을 요건화 하며, 신기술 활용 등에 의한 코스트 절감이 높은 사업을 우선 채택
- 각종 보조금(도로 2,223억엔, 하천 15억엔, 항만 12억엔) 외 방재·안전 교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시책 효과가 높은 사업에 국비를 중점 투자할 예정
- 중소기업지원 중점화
  -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자회사 및 과세소득이 일정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보조 대상 외 또는 대기업과 동률의 보조율을 적용해 지원을 중점화
- 장학금 업무 시스템 쇄신에 의한 신청·심사의 효율화 등
  - 독립행정법인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운영비 교부금에 대해서, 장학금 업무 시스템을 쇄신하여 신청 수속을 간략화하고, 심사를 신속화 하며, 시스템 보수 비용 및 심사 비용을 삭감(2021년부터 10년간 - 28억엔 삭감 효과)

### <참고 3> 매년도 약제비 개정 실현

- 의약품 거래가격(시장 실재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상환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 멈춰 있으면, 환자 부담, 보험료 부담, 공공부담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됨
  - 이를 위해,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실시한 약제비 개정을 2021년도부터 매년 실시하여, 시장가격을 약제비에 반영
  - 2021년 약제비 개정은 매년도 약제비 개정 첫해이며, 평균 괴리율 8.0%의 0.625배인 괴리율 5%를 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특례」로서 약제비 삭감폭을 0.8% 만큼 완화
    - 2020년 약제비 조사 결과 평균 괴리율은 8.0%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정 2년 후에 실시한 2018년 약제비 조사의 평균 괴리율을 0.8% 상회한 것으로,

이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영향으로 간주하여 반영

- 이에 의해, 약 7%의 품목에서 약제비 삭감 -4,315억엔(국비 -1,001억엔)을 실현하여 국민 부담 경감 예정